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37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5월 21일 (음력 4월 27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근성 살아난 KIA 호랑이 지역민들에 희망 던지다

신바람 야구 3위 도약…연일 구름관중

불황·정치적 소외 시민들에 청량제로

KIA 타이거즈가 지난 19일 LG 트윈스를 6-0으로 제압하고 24개월하고도 16일만에 3위에 올라서자 지역 주민과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날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1만3천400명의 관중이 찾아 시즌 7번째 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9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말전 이후 3경기 연속 매진이다.

19일 현재 무등경기장에 16만4천2백60명의 관중이 다녀가면서 평균 관중 수가 8천6백45명에 이를 정도로 야구 열기가 뜨겁다.

과거 해태 타이거즈 시절 그랬듯이 KIA의 선전은 시민과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침체된 지역경제로 일상이 피곤한 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소외감'에 젖어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KIA의 승리는 청량제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올 시즌 광주에 불고 있는 야구 열풍의 원동력은 역시 성적이다.

통산 9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에 빛나는 KIA는 2007년 최하위로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주전들의 줄부상 속에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하지만 올 시즌 한층 두터워진 마운드와 최희섭을 중심으로 한 타선의 힘으로 5할 승률을 넘어 3위까지 치고 올랐다. '가을잔치' 플레이오프가 광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꿈의 V-10이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KIA는 지난 14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6개의 홈런을 터트리는 등 예전의 호쾌한 공격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해태시절 '광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이종범을 비롯한 고참스타들도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광주지역 팬들이 애타게 기다려 왔던 홈런왕, 신인왕을 향한 도전도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다. '빅 초이' 최희섭은 홈런 1위를 달리며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고 있고, 장타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무서운 신인' 안치홍도 24년만의 신인왕을 향해 돌진 중이다.

철벽 마무리로 변신한 윤석민과 신예 좌완 에이스 양현종 등이 버티고 선 마운드도 '투수 왕국' 재현에 나서 광주 시민들에게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인 위상을 과시한 한국야구 기세도 젊은 팬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야구 대표팀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구기 단체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선사한 데 이어,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을 상대로 통쾌한 승부를 연출하는 등 '국민 스포츠'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KIA의 윤석민과 이용규는 올림픽과 WBC에서 맹활약하며 '국민스타'로 떠오르며 광주에 새로운 '야구의 봄'을 꽃피웠다.

KIA 타이거즈가 선사하는 승리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팬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살 맛 난다 KIA의 신바람 야구가 '타이거즈의 영광'을 그리워 하는 광주 시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팬들. /위직량기자 jrwi@

"브뤼셀 낭보 꼭 전하겠다"

광주시·정부 대표단 오늘 현지 도착 표심잡기 박차

2015 U대회 개최지 결정 D-2

브뤼셀=윤영기 기자

"시민들의 열망과 광주시가 실사 과정에서 보여준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비전 등 모든 면에서 타 도시에 앞서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를 이틀 앞두고 광주와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이 한치의 양보 없는 막판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정부 대표단이 총회 참석을 위해 21일 브뤼셀에 도착한다.

대표단은 박광태 광주시장과 정의화 유치위원장, 광주시의회 의원, 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정부 대표단 단장을 맡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 10여명과 함께 총회에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밤 FIS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오는 2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광주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 인프라 등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정부 대표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지원 의지 표명 등 범정부 차원의 대회 지원을 내세워 광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브뤼셀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한 광주U대회 유치위는 막판 표심잡기 전략 점검과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5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FISU 집행위원회 총회는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부터 브뤼셀 돌체 라 울프 호텔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광주, 타이베이, 에드먼턴 3개 유치 신청도시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27명의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개최지 발표는 23일 밤 8시(한국시각 24일 새벽 3시).

현재 막판 관세는 광주와 캐나다 에드먼턴이 예측불허의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3 대회에 도전했던 광주는 경기장 시설, 도시 인프라 등 객관적 여건에서 경쟁도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캐나다 에드먼턴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내세워 집행위원들을 공략하고 있으며, 대만도 도시브랜드를 내세워 집행위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nfoot@kwangju.co.kr

"정이사 체제 가교역 할 것"

조선대 16대 이사장에 유수택씨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16대 이사장에 유수택〈사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선임됐다.

조선대 임시이사회는 20일 오전 서울 파레스호텔에서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유수택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6개월 임기의 이사장에 선임했다.

유수택 신임 이사장은 "미래 지향적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 등과 함께 하는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이번 임시이사는 정이사 선임을 위한 6개월간의 한시적 이사로서 대학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임시 이사 면면이 종전이사들은 물론 현 경영진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인 만큼 투명한 경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에는 정이사 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 박원기 KBS광주방송총국장, 최영하 광주은행 전 상무이사, 황덕호 서울대 교수 등 5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와 장병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찬기 전라북도 부교육감, 김민환 고려대 교수 등 4명을 임시이사 후보로 선정해 교과부에 추천한 상태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1988년 118일간 이어진 농성 등 교내 민주화 투쟁으로 고(故)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주축이 된 옛 경영진이 물러난 이후, 지난 해 6월 말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되다 지난달 조선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임시이사 재파견이 내려진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DYNASTY
함평 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팬릭스 코스 9홀 증설
사원모집
함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